

2015 / 11 / 23 (MON)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1%가량 상승.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인터넷 업종이 2.2% 상승하며 가장 두드러진 반면 IT서비스가 약보합세를 나타내며 유일하게 하락.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한국정보인증, 사람인에이치알, 엔씨소프트, 조이시티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선데이토즈, 액토즈소프트, 게임빌 약세

종목별로는 내년 출시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씨소프트가 3.1% 상승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96.46	0.7%	-13.2%	-816 억	844 억
(코) 인터넷	19,108.71	0.4%	0.2%	-33 억	14 억
(코) IT S/W&SVC	2,050.54	0.9%	2.6%	-95 억	13 억
(코) 소프트웨어	296.70	1.3%	21.0%	-47 억	5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27,000	3.0%	-11.9%	-32 억	122 억
카카오	115,500	0.2%	-6.6%	-39 억	10 억
한국사이버결제	27,000	-0.6%	1.1%	-1 억	-1 억
KG이니시스	15,400	2.0%	-14.0%	0 억	1 억
KG모빌리언스	12,950	1.6%	-11.0%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2,200	5.0%	98.2%	0 억	4 억
KTH	8,380	1.3%	9.5%	0 억	0 억
아프리카TV	25,600	6.4%	-4.3%	-5 억	9 억
SK컴즈	6,560	0.8%	-1.4%	0 억	0 억
KT뮤직	4,685	2.0%	-13.1%	1 억	0 억
다날	9,430	2.1%	16.4%	3 억	#N/A
에스24	9,850	2.8%	41.3%	2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8,500	1.0%	-11.9%	26 억	46 억
SK	243,000	-2.0%	13.8%	-11 억	-29 억
다우기술	21,750	-3.1%	82.0%	-27 억	2 억
포스코 ICT	4,765	1.2%	-10.1%	0 억	1 억
신세계 I&C	118,000	5.8%	5.4%	4 억	1 억
동부	4,890	-2.2%	94.8%	0 억	#N/A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18,000	3.1%	19.8%	-13 억	97 억
EA	105,800	1.1%	-12.2%	5 억	1 억
NHN엔터테인먼트	54,000	0.7%	-36.2%	8 억	-13 억
웹젠	22,850	-1.9%	-21.3%	-13 억	1 억
위메이드	37,300	1.1%	-1.3%	-11 억	2 억
선데이토즈	11,750	-2.9%	-31.7%	-4 억	-9 억
액토즈소프트	31,700	-2.5%	-5.4%	5 억	-2 억
게임빌	76,900	-2.0%	-36.3%	-3 억	-2 억
네오위즈게임즈	17,050	1.2%	-25.1%	-2 억	2 억
넥슨지티	12,950	0.8%	1.6%	1 억	-1 억
데브시스템즈	26,750	0.8%	-44.0%	0 억	0 억
조이시티	30,100	2.9%	49.0%	1 억	2 억
파티게임즈	14,950	-1.6%	-42.6%	0 억	0 억
조이맥스	16,050	0.0%	-41.2%	0 억	0 억
한빛소프트	7,010	0.0%	21.1%	0 억	0 억
와이디온라인	6,930	3.3%	50.0%	-1 억	#N/A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4.29	0.7%	5.0%
MSCI Internet	198.54	1.7%	30.0%
MSCI IT Services	125.72	0.5%	6.8%
MSCI Software	182.30	0.4%	11.4%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77.00	2.2%	46.4%
Facebook	107.32	1.0%	37.6%
Tencent	155.10	1.3%	37.9%
Baidu	206.69	-0.5%	-9.3%
Yahoo	33.11	1.5%	-34.4%
LinkedIn	252.87	1.1%	10.1%
Twitter	26.27	-0.2%	-26.8%
Weibo	17.84	-1.0%	25.3%
SINA	51.54	-0.3%	37.8%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38.50	1.3%	-13.7%
TCS	2,398.35	1.5%	-6.3%
Accenture	107.97	0.6%	20.9%
HP	14.06	2.0%	-65.0%
Infosys	1,052.40	0.4%	6.7%
Wipro	569.70	2.3%	2.6%
NTT Data	6,170	0.0%	36.7%
Fujitsu	614.60	-0.4%	-4.6%
CSC	69.79	-0.4%	10.7%

Games	close	1D	YTD
Nintendo	19,365	0.5%	53.6%
EA	72.42	1.9%	54.0%
Blizzard	37.51	1.4%	86.2%
NEXON	1,950	3.4%	73.3%
NAMCO	2,834	1.5%	10.5%
King	17.72	-0.2%	15.4%
Konami	3,065	2.2%	38.1%
Square Enix	2,939	0.0%	17.2%
GungHo	400	1.3%	-9.3%
DeNA	1,927	1.1%	33.3%
Sega	1,330	-0.2%	-14.5%
Take-Two	35.60	2.8%	27.0%
Zynga	2.54	0.4%	-4.5%
Ubisoft	26.76	0.9%	76.4%
Gree	593	1.9%	-18.1%
Changyou	22.01	2.6%	-19.6%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26 억	카카오	-39 억
NHN엔터	8 억	NAVER	-32 억
컴투스	5 억	다우기술	-27 억
액토즈소프트	5 억	웹젠	-13 억
신세계 I&C	4 억	엔씨소프트	-13 억
처음엔씨	4 억	위메이드	-11 억
지트리비엔티	3 억	SK	-11 억
인피니트헬스	3 억	라운시큐어	-11 억
다날	3 억	한국정보인증	-9 억
에스24	2 억	코나아이	-7 억
벅스	2 억	이니텍	-6 억
넥슨지티	1 억	한국전자인증	-6 억
소리바다	1 억	아프리카TV	-5 억
필링크	1 억	선데이토즈	-4 억
안랩	1 억	경봉	-4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122 억	SK	-29 억
엔씨소프트	97 억	더존비즈온	-15 억
삼성에스디에	46 억	NHN엔터	-13 억
카카오	10 억	선데이토즈	-9 억
한국정보인증	10 억	한글과컴퓨터	-5 억
아프리카TV	9 억	SGA	-4 억
사람인에이치알	4 억	케이사인	-4 억
안랩	3 억	아이크래프트	-2 억
다우기술	2 억	게임빌	-2 억
조이시티	2 억	액토즈소프트	-2 억
바른손이앤에	2 억	코나아이	-2 억
네오위즈게임	2 억	민앤지	-2 억
위메이드	2 억	한국사이버결	-1 억
MDS테크	1 억	넥슨지티	-1 억
웹젠	1 억	유비벨룩스	-1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5,000	0.4%	3.9%	-7 억	-2 억
더존비즈온	22,300	-2.6%	139.8%	0 억	-15 억
한글과컴퓨터	19,850	-1.7%	-1.7%	-1 억	-5 억
골프존	89,100	-0.4%	252.9%	0 억	0 억
안랩	42,700	1.1%	18.6%	1 억	3 억
한국정보인증	13,600	6.3%	291.4%	-9 억	10 억
슈프리카	19,400	-0.5%	-23.8%	0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5,570	-0.2%	105.5%	0 억	#N/A
지트리비엔티	13,350	-0.4%	287.0%	3 억	1 억
MDS테크	22,000	-0.2%	6.3%	0 억	1 억
오상자이엘	11,150	3.2%	-16.2%	1 억	0 억
인피니트헬스케어	10,000	0.5%	38.1%	3 억	0 억
케이사인	2,870	2.7%	16.7%	0 억	-4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4.19	0.5%	16.7%
Oracle	39.34	0.8%	-12.5%
SAP	79.77	-0.5%	14.5%
EMC	25.33	1.2%	-14.8%
Salesforce	80.99	0.4%	36.6%
Adobe	91.81	0.1%	26.3%
Vmware	58.66	0.4%	-28.9%
Intuit	103.20	5.9%	11.9%
Symantec	19.94	-0.3%	-22.3%
CA	28.28	-0.2%	-7.1%
Citrix	75.05	3.3%	17.6%
Autodesk	60.55	-2.9%	0.8%
Synopsys	48.23	-8.2%	11.0%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신세계 I&C	5.8%	최근이슈

신세계I&C, 그룹 결제 인프라 과점 전망

신세계 I&C가 그룹 내 결제인프라를 점진 잠식할 전망이다. 그룹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힘입어 2,100 만명의 신세계포인트 가입자는 SSG PAY 사용자로 점진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3Q15 말 40 만명에 불과한 전환가입자는 2016년 100만명 (전환비율 5%)에서 2020년 2,730만명 (전환비율 13%)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사는 신세계티비쇼핑으로 결제 솔루션 및 유통 시스템을 과점 공급한다. 홈쇼핑 기본 결제수단으로 SSG PAY 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홈쇼핑 사업이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동사가 보유중인 드림커머스 투자지분 22%에서 발생하는 지분법이익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그룹 지급결제 인프라를 잠식하며 장기 성장 스토리가 기대된다. 이마트 홈쇼핑 사업 관련 시스템 수주가 증가하고 지분법이익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룹 면세 사업 확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면세 유통 솔루션을 과점 공급할 전망이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500억원 규모 KDB생명 IT아웃소싱, 아시아나IDT 선정

500억원 규모의 KDB생명의 IT아웃소싱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시아나IDT가 선정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의 IT아웃소싱 주사업자로 아시아나IDT가 선정, 현재 우선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DB생명의 이번 IT아웃소싱은 5년간 KDB생명의 IT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KDB생명은 그동안 아시아나IDT에게 IT아웃소싱을 맡겨왔지만 고객센터, 채권추심, 자산운용 등 일부를 아웃소싱하는데 그쳐왔다. 하지만 이번 IT아웃소싱 사업은 KDB생명의 모든 전산 인프라를 통합 유지보수, 운영하는 토탈IT아웃소싱 사업이다. 이에 따라 SK, LG CNS 등 IT서비스업체들이 경쟁을 벌여온 상황이다.

아시아나IDT는 그동안 쌓아온 KDB생명에 대한 시스템 이해도와 보험 사업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아시아나IDT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IT 관련 인력은 독자적인 컨설팅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전문화돼 있으며 종합금융 업무에 특화돼 있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컴투스	1.1%	최근이슈

'서머너즈워' 12월 대형 업데이트 '이계의 틈' 공개

글로벌 히트 모바일게임 '서머너즈워'가 12월 대형 콘텐츠 업데이트 '이계의 틈'을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21일 컴투스는 논현동 쿼츠호텔에서 서머너즈워 이용자 간담회 '더 넥스트 스테이지(The Next Stage)' 행사를 개최하고 12월 선보일 예정인 '이계의 틈' 업데이트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계의 틈'은 월드보스, 레이드 전투, 마법 부여, 형상 변환 등 새로운 콘텐츠로 구성됐다.

업데이트를 발표한 컴투스의 정민영 PD는 "내가 보유한 몬스터들이 총 출동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천공의 섬(게임 내 세계관)에서 과연 누가 가장 강할까라는 의문을 해소한다는 생각으로 기획했다"라며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게임의 재미부분에서 생각을 해 마련했다"라고 소개했다.

정 PD는 "레이드 전투는 실시간 파티 플레이와 파티원간의 시너지, 함께 플레이하는 이용자간의 소셜성 등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턴베이스 게임이지만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년 업데이트를 고려중인 콘텐츠도 소개됐다. 우선 '이계의 틈' 레이드 전투외에 다섯 개의 이계 던전이 준비되고 있다. 역시 실시간 파티 플레이 형태로 전투를 구현하고 있으며 속성과 연관있는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대전 콘텐츠 아레나를 새로운 형태로 선보인다. 실시간 아레나 대전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서버를 넘어서 전세계인과 대결할 수 있거나 3성 이하의 몬스터들로만 가능한 대전 등 다양한 형태의 대전 콘텐츠가 기획 중이다.

이날 행사에 나선 컴투스 게임제작본부 총괄 이주환 상무는 "서머너즈워'가 약 1년 8개월 동안 한국은 물론 글로벌에서 인기를 끄는 대표 모바일게임으로 성장하는 데는 '서머너즈워'를 사랑해준 이용자들의 응원이 컸다"라며 "이 자리에서 첫 공개하는 '이계의 틈'과 '서머너즈워'에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머너즈워' 열혈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자에서 업데이트 발표는 물론 개발자와의 Q&A, 현장 이벤트, 경품 추첨 등에 참여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엔씨소프트	3.1%	최근이슈

News & Issue

엔씨소프트, 대작 '리니지 이터널' 내년 상반기 베타테스트 예정

리니지는 10월 14일에 있었던 7년만의 업데이트 영향으로 게임 이용자와 이용 시간이 의미있게 증가했다. 3분기 리니지는 44만명의 게이머가 5.1만원의 ARPU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용자 지표 상승은 동사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긍정적인 점은 캐쉬 카운인 리니지가 업데이트를 통해 견조한 흥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16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고, 동사 추가에는 2016년의 여러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선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초 중국에서 텐센트를 통해 '블소 모바일' 출시를 시작으로, 기존 IP(블소 모바일의 경우 스토리/캐릭터)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들을 다수 출시할 계획이다. 5년 만에 대작 게임도 출시된다. 2012년 출시된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 최초의 대작 게임 리니지 이터널이 2016년 상반기에 대규모 베타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와이디온라인	3.3%	최근이슈

News & Issue

와이디온라인 '소울마스터' 中 CBT

와이디온라인은 내달 4일까지 2주간 중국에서 온라인 MORPG '소울마스터'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현지 퍼블리셔 광우게임즈와 협력해 안정적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캐릭터 '마하리트'를 비롯해 3대3 타워 디펜스 모드 등 현지 유저를 위한 시스템을 다수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다.

광우게임즈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업체로 자체 개발 온라인게임 '문도'를 선보여 동시 접속자 100만명 이상을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다. 또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수백만 명이 넘는 플랫폼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소울마스터'는 유저의 아바타인 '소울링커'와 동료인 '소울'을 이끌고 대규모 전투를 펼치는 컨트롤 액션 MORPG다. 특히 50개 이상 방대한 동료 캐릭터 소울과 함께 부대전투를 펼칠 수 있는 게임성이 호평을 받았다.

와이디온라인은 또한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이번 중국 시장 테스트까지 실시하며 점차 글로벌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3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1월 2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1월 2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